

이무영 소설 『항가』의 개작과 검열 연구*

김 영 애**

요약

본고는 『항가』의 개작에 관한 여러 요소 중 검열의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원작의 생산소설적 측면, 개작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작에 관여한 검열의 힘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작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작가의 자기 검열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무영의 행보는 친일 흔적 지우기, 친일 청산 비판, 그리고 우익 이데올로기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서 저자는 자기검열 성 개작을 단행한 것이다. 이 개작이 원작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대폭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무영의 작가의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시대 변화를 빠르게 간파하고 그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무영은 자기검열을 통한 개작을 선택한 것이다. 개작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곧 검열이 어떻게 개작의 동인으로 작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곧 이무영이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시대 변화에 편승한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무영이 해방 직후 원작 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을 기민하게 삭제하고 고쳐 썼다는 사실은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무영이 수정하거나 삭제한 내용은 결국 그의 시대 인식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것들이다. 시대 인식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친일 행적을 합리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러 작품에서 친일파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한 것 또한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주제어: 이무영, 향가, 농민문학, 외부검열, 개작, 자기검열, 친일문학, 반공주의

목차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2. 『향가』의 개작 배경과 자기검열
3. 창작활동의 재개와 『향가』 개작의 관련성
4. 친일 행적 지우기로서의 자기검열
5. 검열에 의한 개작의 의미와 효과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이무영(1908-1960)은 식민지시기를 대표하는 농촌소설가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식민지 말기에 발표된 그의 장편소설 『향가』에 관해서는 ‘농촌소설의 전범’, ‘철저하게 체제 순응적 문학’이라는 다소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조진기는 <매일신보> 연재본과 1947년 단행본 간의 세밀한 차이에 대해 분석한 글에서 “이무영을 지금까지 한국의 농민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평가한 것은 실상 그의 문학 속에 내재된 시대정신을 외면할 때만 가능한 것”¹⁾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식민지시대 이무영 소설의 친일 성향에 동조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향가』를,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농민의 생산을 독려하는 ‘생산소설’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 및 지원병의 강조 등 서사적 차원에서 당시 제국 일본의 식민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혐의의 근거로 제시된다.²⁾

1) 조진기, 「이무영의 『향가』 연구」, 『배달말』44, 배달말학회, 2009, 76면.

2) 류양선, 『한국농민문학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임기현, 「이무영과 친일문학」, 『청주문학』, 온누리출판사, 1996; 이주형, 「일제강점시대 이무영 소설연구」, 『국어교육연구』31, 국어교육학회, 1999; 임기현, 「이무영의 친일소설과 일본어 사용 문제 『향가』를 중심으로」, 『비교

이무영은 해방 이후 『항가』를 개작하고 이어 『일년기』를 연재하여 작가로서의 새로운 입지를 다져나가는 한편, 단정 수립 이후 문총 최고위원 및 펜클럽 중앙위원 등을 역임하여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자리매김한다.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반공주의 노선을 택했다. 한국전쟁 당시 입대하여 해군 대령(국방부 정훈국장)으로 예편하고, 1960년 작고할 때까지 남한 문단 권력의 중심에 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1947년 『항가』 개작본 출간 또한 자신에 대한 친일 혐의로부터 벗어나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실천이었다. 식민지 말기 그의 친일을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³⁾이었다고 평가할 때, 해방 직후 그가 『항가』의 서사를 대폭 개작한 것은 분명 친일 행적 삭제 목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그는 자신을 포함한 친일파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하거나, 당대 친일파 청산 활동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항가』의 개작은 이러한 작가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그렇다면 해방기 『항가』의 개작을 통한 친일 행위의 삭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것이 작가가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개작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작동한 내·외적인 검열의 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의 검열은 표면적으로 자기검열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외부검열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무영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해야 했던 상황이다. 해방 직전의 친일 행적과 해방 직후의 자발적 개작은 이러한 검열의 작동과 긴밀한 인과

문학』47, 한국비교문학학회, 2009; 조진기, 「이무영의 『항가』 연구」, 『배달말』44, 배달말학회,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임기현과 조진기의 논문이 같은 해 ‘개작’을 키워드로 하여 발표된 사실이 주목을 끈다. 이는 곧 『항가』의 개작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무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08년을 전후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3) 임기현, 「이무영의 친일소설과 일본어 사용 문제-『항가』를 중심으로」, 『비교문학』47, 한국비교문학학회, 2009, 264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무영 또한 이러한 양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본고는 『향가』의 개작에 관한 여러 요소 중 검열의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향가』의 개작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임기현의 논문을 통해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논문은 해방 이전에 발표된 원작과 해방 이후의 개작본을 면밀히 비교 대조하여 그 차이와 의미를 상술했다. 본고는 선행 연구가 원작의 생산소설적 측면 및 개작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작에 개입한 검열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개작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판본 간 텍스트 비교 대조를 넘어, 개작에 관여한 검열의 영향과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해방 이후 친일 흔적 지우기로 단순화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단순화는 작가의식 및 텍스트 변화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텍스트 간 단순 비교 대조를 넘어 텍스트 변화에 관여한 내·외적 힘의 존재를 함께 고려할 때 『향가』의 개작 의도와 효과를 더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가』의 개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발표된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을 함께 검토하여 『향가』의 개작 의도 및 검열의 양상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향가』의 개작 배경과 자기검열

이무영은 1942년 조선총독부 관변단체 ‘조선문인협회’에서 유진오, 유치진 등과 함께 소설·희곡부회 상임간사를 맡았고, 같은 해 〈부산일보〉에 일문소설 『靑瓦の家』를 연재했다. 이 작품은 “조선에서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일간신문 연재소설”로 평가되며, 이 작품으로 그는 제4회 ‘조선예술상’⁴⁾을 수상했다. ‘조선예술상’은 “일제가 일본의 문화 발

전을 위해 조선에서 활동하는 각 방면의 예술가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이 있었으며, 이무영은 이 소설을 통해 “황민으로서 조선동포가 가야 하는 역사적 도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⁵⁾ 『靑瓦の家』을 비롯해 이무영이 일문으로 발표한 작품은 적어도 14편 이상이며, 이는 이석훈, 정인택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⁶⁾

이밖에도 그는 일제가 요구하는 내용의 문학작품을 ‘생산수량전임제’를 통해 생산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무적황군의 활약상을 조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대동아전기’를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시 체제 하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생산소설’을 발표하여 제국의 식민정책에 영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43년 〈매일신보〉 연재 장편소설 『항가』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본어 교육, 지원병, 농지 확보를 통한 증산 등을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당시 일제가 ‘농촌갱생’이란 이름으로 농민수탈을 자행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고,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소설로 형상화한 것은 이무영이 제국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선도했음을 의미한다.⁷⁾

해방 직후 이무영은 자신이 식민지시기에 발표한 농촌소설 계열 작품들을 다시 출간하는 한편,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1940년 〈인문평론〉에 연재했던 『흙의 노예』를 1946년 조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

4) 정실비의 언급에 따르면, “조선예술상은 기쿠치 간이 총독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모던일본사가 주최한 상이다. 이 상은 조선인 예술가에게 주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예술분야의 상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은 내선일체 정책 하에서 정치와 예술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예술상』 제1회 수상작은 이광수의 단편소설 「무명」의 일본 번역본이다. 정실비, 「이광수 원작 「무명」의 번역을 통해서 본 번역자로서의 김사랑」, 『한국근대문학연구』30, 한국근대문학회, 2014, 214-215면.

5)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1917-1950』, 고려대출판부, 2015, 479-480면.

6) 임기현, 앞의 글, 256-257면.

7) 조진기, 앞의 글, 99면.

간하고, 1943년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항가』를 개작해 1947년 동방문화사에서 출간했다. 또한 『일년기』를 1947년 <조선교육>에 연재하고 1948년 장편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국민신문>에 연재했다. 해방 직후 이무영의 문학적 행보는 식민지시기 작품의 재출간과 개작, 그리고 새로운 소설 창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학적 행보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이무영은 해방 직후 경기도 군포의 농촌마을에서 칩거하다가 1946년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1946년 3월 조선문필가협회에 참여하고, <백민>에 단편 「宏壯小傳」(1946. 12)을 개작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문총 최고위원을 맡으며 우익 문단의 핵심 인사로 부상하고 작고할 때까지 창작 및 교육활동에 종사했다.

해방 이후 이무영의 행보는 우익 이념과 반공주의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주형에 따르면 해방 이후 이무영은 “우익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그에 입각한 적극적 현실대응을 소설을 통해 주창하고, 한편으로는 민족의 정도에 역행하는 존재들을 고발”하고자 했다. 그가 해방 이후 개작해 발표한 소설 「굉장소진」은 “좌익과 좌익의 친일파 척결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우익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시기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각오를 선언 없이 드러내는”⁸⁾ 작품이다. 해방 정국에서 좌익에 의해 진행된 친일파 척결론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 작품에 드러난 이무영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등단하고 활동했던 작가들 대부분은 해방 정국에서 자기 비판적인 언술이나 작품을 통해 과거 친일 행적을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무영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는 과거 발표한 소설 중 친일 혐의가 있는 작품들의 내용을 바꾸거나 지우는 한편,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8) 이주형, 「해방이후 이무영 소설의 전개 양상」, 『국어교육연구』32, 국어교육학회, 2000, 183-184면.

항가』와 「宏壯小傳」의 개작은 이러한 그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해방기에 발표한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 또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당시 여러 문인들의 전향과 더불어 친일 행적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이 시기의 검열은 “외적 검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 검열”이고, “검열의 정치적 종속성” 및 “내적 검열의 집단화 현상”⁹⁾이 강화된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무영 또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 및 자기검열의 측면에서 『항가』를 대폭 개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했던 것이다.

『항가』는 식민지 말기인 1943년 5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122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 완료된 장편소설이다. 1947년 동방문화사에서 첫 단행본이 나왔고, 2년 뒤 민중서림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출간되었다. 1947년 동방문화사 출간 단행본 『항가』와 1949년 민중서림 출간 『항가』는 3쪽 분량의 ‘選集卷末記’가 전자에 누락된 점을 제외하고 본문이 모두 동일하다. 즉 『항가』의 개작은 1947년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 연재본과 1947년 개작본 사이에는 결말의 서사가 크게 달라지는 등 상당한 폭의 개작이 이루어졌다. 1947년본은 1975년 신구문화사 『이무영대표작전집』, 2000년 국학자료원 『전집』의 저본이 되었다. 1975년 신구문화사판에서는 이전의 오기, 어문규정에 따른 수정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 상 1947년 동방문화사본과 동일하다.¹⁰⁾

“황국사관이나 당대 일본지배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어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도 삭제되거나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경”¹¹⁾되었다는 개작 관련 평

9) 정근식·최경희,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과제-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대동문화연구』74권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34-35면.

10) 임기현, 앞의 글, 241면.

11) 송하춘, 앞의 책, 546-547면.

가 또한 『향가』 개작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향가』가 어떤 뚜렷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개작되었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동공영권 수립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총력을 집결하는 전시 하에서 부락의 갱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농촌을 그렸으며, 자작농 창정이라는 국책협력¹²⁾의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을 묘사한 작품이 해방 이후 개작 과정에서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검열을 통한 친일 흔적 지우기에 있으며, 이무영은 개작본을 통해 친일 행위가 당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3. 창작활동 재개와 『향가』 개작의 관련성

해방 직후 이무영은 『향가』와 「굉장소전」 등 식민지 말기에 발표했던 작품을 개작하는 한편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새로운 장편 소설을 발표했다. 이러한 창작활동의 재개는 “원고료를 위한 직업작가로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¹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1947년 후반기 좌익 서적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좌파 문인들의 활동 근거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점, 그리고 이와 상대적으로 우파 문인들이 문단 주도권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한 점¹⁴⁾ 등이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¹⁵⁾

『일년기』는 『향가』의 개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이무영이 발표한 작품으

12)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311면.

13) 이주형, 앞의 글, 183면.

14) 정근식·최경희, 앞의 글, 34면.

15) 임경순은 “1945-53년의 검열체계가 문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거세한 것은 좌파적 성향이었으며, 이러한 성향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정치성 자체가 거세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임경순, 「검열논리의 내면화와 문학의 정치성」, 『상허학보』18, 상허학회, 2006, 288-289면.

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주인공이 해방 후 겪는 고뇌와 곤란”¹⁶⁾을 서사화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47년 12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조선교육>에 연재한 것으로, 『항가』의 개작으로부터 한달 뒤 연재를 시작했다. 따라서 『일년기』의 서사 또한 『항가』의 개작 방향과 의도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사 골자는 식민지시기 친일을 한 지식인 권탁이 해방 직후 농촌 마을 ‘안골’로 쫓겨 내려온 이후 겪는 감시와 그로 인한 고통을 그리는 데 있다. 신문기자였던 권탁이 생계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정황과, 해방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핍박을 피해 농촌으로 피신했으나 여전히 감시와 그로 인한 고통 등이 현장감 있게 묘사된 작품이다. 이무영이 해방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일년기』의 서사는 해방기 이무영의 작가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년기』의 서사는 실제 이무영이 해방 직후 보인 행적과 상당히 유사하다.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D일보 기자였던 주인공 권탁이 과거에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시골마을로 도피하는 내용이나, 마을의 유일한 사상가로 주목 받아 검경의 감시를 받는다는 설정, 보국대에서 노동 동원에 응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건 등을 통해 당시 이무영의 행적이 이 작품 속 권탁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일년기』는 안골이라는 마을에서조차 안락하게 살아갈 수 없는 권탁의 삶과, 그의 과거 친일 이력 사이의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삼았으나 이 작품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권탁의 친일 행적이 해방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그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다. 권탁뿐만 아니라 과거 구장이던 박도선이 인민재판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 징용계원이었던 백태복의 열 살 난 아들이 아버 대신 분

16) 송하춘, 앞의 책, 396면.

노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설정 또한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작중 권탁은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치대원들의 감시와 탄압, 친일파를 응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감을 느끼는 인물처럼 묘사된다. 이는 곧 당시 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에 대한 이무영의 시각을 보여준다.

『일년기』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단편 「宏壯小傳」에서도 해방 정국의 친일파 청산을 조롱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이 시기 이무영의 친일파 청산에 관한 입장이 어떠한가를 짐작케 한다. 「굉장소전」은 1944년 5월 〈文化朝鮮〉에 발표한 일문 단편소설 「宏壯氏」를 한글소설로 개작해 1946년 12월 〈백민〉에 다시 발표한 작품이다. 작가 스스로 일문 소설을 한글소설로 번역 개작해 재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명보다 ‘굉장씨’나 ‘굉장댁’ 등의 별명으로 더 유명한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로, 일정(日政)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했던 인물이 갑자기 닥친 해방으로 인해 과거 친일파를 척결하는 치안부대원이 되는 과정을 냉소적으로 그렸다. 식민지시기 관청과 관리들에게 아부와 향응을 일삼던 친일파 ‘굉장씨’가 해방 정국의 혼란함을 틈타 출세와 치부를 꿈꾸다가 좌절되자 치안부대원이 되어 친일파들을 척결하려고 결심한다는 내용의 서사는 곧, 해방 정국의 친일파 청산활동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려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8년에 발표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서도 친일파를 시대적 희생양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친일 이력에 대한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기변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1948년 10월 11일부터 〈국민신문〉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1956년 사상계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삼년』으로 개제되었다.¹⁷⁾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좌우 이데올로

17) 송하춘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530-531면)에는 이 작품이 〈한국일보〉의 전신인 〈태양신문〉에 1946년부터 연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이 작품은 〈태양신문〉이 아닌 〈국민신문〉에, 1946년이 아닌 1948년 10월 11일부터 연재되었다. 현재 〈국민신문〉 연재본

기의 대립 양상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각각 자신들의 이념을 통해 국가 질서를 수립하고자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우익의 구호 그대로”¹⁸⁾인 것처럼 이 작품은 철저하게 우익의 시각으로 해방기와 분단시대의 갈등과 혼란을 소설화했다. 이 작품의 전체 서사는 “우익은 선, 좌익은 악”이라는 견고한 도식에 지배되고 있다. 우익 진영에 속하는 인물은 애국적, 애족적, 인간적, 합리적인 반면 좌익 진영에 속한 인물은 그와 상반되는 자질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이승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는 작중 인물들의 입을 빌어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작가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형상화한 것처럼 이무영은 해방 직후 우익 이데올로기의 적극적인 수용과 지지를 통해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작가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당대 대부분의 친일파 문인들이 보인 행적과 유사하게 이무영 또한 좌익이 아닌 우익 이데올로기를 택했고, 이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택이었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곧 작품 속 서사에 구현된 친일파 청산 문제에 곧바로 반영된다. 친일파 청산과 척결이 아닌 포용, 나아가 그들을 독립국가 건설의 한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무영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반영”¹⁹⁾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무영은 해방 직후 서울을 떠나 경기도 군포의 한 농촌마을에 은신하면서 정국 혼란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은신과 침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무영은 『항가』, 『굉장소전』의 개작, 『일년기』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 기획에 몰두한 것으로

은 18회까지 확인 가능하다.

18) 이주형, 앞의 글, 188면.

19) 이주형, 앞의 글, 184-187면.

보인다. 『일년기』 속 권탁이라는 인물에는 해방 직후 작가 자신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가』의 개작과 일련의 작품 창작이 동시적·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둘 간의 강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항가』의 개작에 관여한 자기검열의 방식과 내용이 다른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항가』, 「굉장소전」 등 식민지시기에 발표했던 작품들에는 개작을 통해 친일의 흔적을 지우는 방향으로, 『일년기』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 새로 창작한 작품들에는 당대 친일과 청산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자기검열의 힘이 작동했고, 이것이 해방기 이무영의 창작활동을 관통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4. 친일 행적 지우기로서의 자기검열

해방 직후 이무영이 『항가』, 「굉장소전」을 개작하고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을 연이어 발표한 배경에는 이렇듯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새로운 창작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기검열의 힘이 강하게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가』의 개작을 비롯해 해방기 이무영의 창작 활동 과정에서 작동한 자기검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항가』의 개작을 통해 원작에 구현된 내선일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한 것과,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친일과 청산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먼저, 『항가』 개작 과정이 내포한 자기검열의 작동 방향과 그 내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작의 내용은 당시 시국 상황을 묘사한 부분, 황국사관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부분, 일본어 사용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개작은 작품의 특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작가의

20) 임기현, 앞의 글, 245면.

자기검열이 작동한 결과이다.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 “자신의 체제 영합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교묘하게 침착을 가하여 자신의 흠집을 지우”려는 “불순”²¹⁾한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특히 대동아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대부분 삭제하고 이를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기의 불가피성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은 친일 행위에 대한 자기검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면장은 다시 오늘날 전시하 농촌의 중임을 말하고 조선민초가 갈망하던 지원병제도가 실시된지도 수년에 이째껏 단 한 사람의 지원병도 내보내지 못한 지금까지의 불명예도 깨끗이 써치우리라 결론을 지었다.²²⁾

자작농 창설이 끝나고 뒤니어 춘추 이기로 나누어 해오는 위문대와 애국저금통의 배당을 하고 금년 최초로 지원병에 응모한 여섯 명의 여비와 기타 준비며 보리공출, 배급 등 전시하의 동회다운 긴장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²³⁾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명령인 이 공출 수량을 내지 않고는 견디어낼 재주가 없다. 여기에는 변명도 없고 연기도 없다. 공출 수량을 못 채운 사람을 위해서 주재소에는 수백 수천 장의 호출장이 와서 쌓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들창 높은 마룻방이 준비하게 대비하고 있다.²⁴⁾

네 알았습니다.

21) 조진기, 앞의 글, 86면.

22) 『항가』, 〈매일신보〉, 7. 24.

23) 『항가』, 〈매일신보〉, 1943. 9. 6.

24) 『항가』, 동방문화사, 1947, 177-178면.

속으로야 무슨 맘을 먹었든 이렇게 대답해야 할 시대의 일이다.²⁵⁾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용문은 〈매일신보〉 연재본이 단행본으로 개작되어 출간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용문은 반대로 원작에 없던 내용이 단행본에 추가된 부분이다. 지원병 제도, 자작농 창설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분량이 단행본 출간 시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임기현과 조진기의 논문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 원작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도 상당한데, 개작본에 첨가된 내용 대부분이 친일 행위의 불가피성을 항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작가의 자기변명에 다름 아니다. 적극적인 친일 메시지를 삭제하고, 작품 전체의 서사를 “시대의 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원작과 개작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주제 변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침삭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작가의 자기검열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무영의 해방 직후 행보는 친일 흔적 지우기, 친일 청산 비판, 그리고 우익 이데올로기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서 저자는 자기검열성 개작을 단행한 것이다. 이 개작이 원작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대폭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무영의 작가의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급격하게 전향하는 과정에 해방기 정국과 문단 분위기가 우파 중심으로 점차 재편되어 간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시대 변화를 빠르게 간파하고 그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무영은 자기검열을 통한 개작을 선택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해방 정국에서 진행된 친일과 청산의 방법과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지우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25) 『항가』, 동방문화사, 1947, 220면.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무영은 작품을 통해 당시 친일과 단죄의 폭력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거나, 부정적인 인물의 모순된 말과 행동을 통해 친일과 척결의 문제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작가 자신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나, 이무영은 오히려 그 방법적인 오류를 시대적 혼란상과 교묘하게 뒤섞어버림으로써 당시 친일과 청산 움직임이 마치 정국 혼란의 한 양상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가 「굉장소전」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일년기』 등의 작품을 통해 공통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주제의 식이며, 이는 곧 이무영이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고민 없이 전향한 토대가 되었다.

개작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곧 검열이 어떻게 개작의 동인으로 작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무영은 친일 혐의가 있는 작품 『향가』와 「굉장소전」 두 편을 해방 직후 개작했다. 그가 원작을 대대적으로 손보아 작품을 재출간할 정도로 이들 작품이 이무영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무영 작품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그가 일문소설 「굉장소전」을 한글소설로 번역해 발표하면서 원작에는 없는 친일과 청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첨가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이무영이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시대 변화에 편승한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무영이 해방 직후 원작 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을 기민하게 삭제하고 고쳐 썼다는 사실은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무영이 수정하거나 삭제한 내용은 결국 그의 시대 인식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것들이다. 시대 인식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친일 행적을 합리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러 작품에서 친일파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한 것 또한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검열에 의한 개작의 의미와 효과

본고는 『항가』의 개작에 관한 여러 요소 중 검열의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항가』의 생산소설적 측면, 개작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작에 관여한 검열의 힘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개작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판본 간 텍스트 비교 대조를 넘어, 개작에 관여한 검열의 영향과 양상에 주목했다. 이를 해방 이후 친일 흔적 지우기로 단순화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단순화는 작가의식 및 텍스트 변화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텍스트 간 단순 비교 대조를 넘어 텍스트 변화에 관여한 내·외적 힘의 존재를 함께 고려할 때 『항가』의 개작 의도와 효과를 더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항가』의 개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발표된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을 함께 검토하여 『항가』의 개작 의도 및 검열의 양상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이무영의 행보는 우익 이념과 반공주의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식민지시기에 등단하고 활동했던 작가들 대부분은 해방 정국에서 자기비판적인 언술이나 작품을 통해 과거 친일 행적을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무영은 이와 달리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소설 중 친일 혐의가 있는 작품들의 내용을 바꾸거나 지우는 한편,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그가 해방기에 개작하거나 창작한 『항가』, 『굉장소전』,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 또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이무영은 해방 직후 서울을 떠나 경기도 군포의 한 농촌마을에 은신하면서 정국 혼란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짧은 은신과 침묵의 시간 동안 이무영은 『항가』, 『굉장소전』의 개작, 『일년기』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의 작품 기획에 집중했다. 특히 『일년기』 속 권탁이라는 인물에는 해방 직후 작가 자신의 실제 모습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가』의 개작과 일련의 작품 창작이 동시적 ·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둘 간의 강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항가』의 개작에 관여한 자기검열의 방식과 내용이 다른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항가』, 「광장소전」 등 식민지시기에 발표했던 작품들에는 개작을 통해 친일의 흔적을 지우는 방향으로, 『일년기』 등 새로 창작한 작품들에는 당대 친일과 청산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자기검열의 힘이 작동했고, 이것이 해방기 이무영의 창작활동을 관통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이무영이 『항가』를 개작하고 『일년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을 연이어 발표한 배경에는 이렇듯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새로운 창작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기검열의 힘이 강하게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가』의 개작을 비롯해 해방기 이무영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작동한 자기검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항가』의 개작을 통해 원작에 구현된 내선일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한 것과,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친일파 청산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개작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작가의 자기검열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무영의 해방 직후 행보는 친일 흔적 지우기, 친일 청산 비판, 그리고 우익 이데올로기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서 저자는 자기검열성 개작을 단행한 것이다. 이 개작이 원작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대폭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무영의 작가의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급격하게 전향하는 과정에 해방기 정국과 문단 분위기가 우파 중심으로 점차 재편되어 간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시대 변화를 빠르게 간파하고 그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무영

은 자기검열을 통한 개작을 선택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해방 정국에서 진행된 친일과 청산의 방법과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지우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무영은 작품을 통해 당시 친일과 단죄의 폭력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거나, 부정적인 인물의 모순된 말과 행동을 통해 친일과 척결의 문제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작가 자신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나, 이무영은 오히려 그 방법적인 오류를 시대적 혼란상과 교묘하게 뒤섞어버림으로써 당시 친일과 청산 움직임이 마치 정국 혼란의 한 양상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가 「굉장소전」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일년기』 등의 작품을 통해 공통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주제의 식이며, 이는 곧 이무영이 친일에서 반공주의로 고민 없이 전향한 토대가 되었다.

개작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곧 검열이 어떻게 개작의 동인으로 작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무영은 친일 혐의가 있는 작품 『항가』와 「굉장소전」 두 편을 해방 직후 개작했다. 그가 원작을 대대적으로 손보아 작품을 재출간할 정도로 이들 작품이 이무영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들 작품은 이무영 작품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그가 일문소설 「굉장소전」을 한글소설로 번역해 발표하면서 원작에는 없는 친일과 청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첨가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이무영이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시대 변화에 편승한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무영이 해방 직후 원작 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을 기민하게 삭제하고 고쳐 썼다는 사실은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무영이 수정하거나 삭제한 내용은 결국 그의 시대 인식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것들이다. 시대 인식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친일 행적을 합리화할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러 작품에서 친일파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한 것 또한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무영, 『향가』, 〈매일신보〉, 1943.5.3.-9.6.

이무영, 『향가』, 동방문화사, 1947.

2. 단행본 및 논문

김병호, 「농민소설 연구-이무영과 박영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87.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 구성-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間SAI』1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163-191면.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출판부, 2013.

이주형, 「일제강점시대 이무영 소설 연구-체제 및 작가의식의 궤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1, 국어교육학회, 1999, 221-240면.

이주형, 「해방 이후 이무영 소설의 전개 양상」, 『국어교육연구』32, 국어교육학회, 2000, 181-209면.

임경순, 「검열논리의 내면화와 문학의 정치성」, 『상허학보』18, 상허학회, 2006, 261-294면.

임기현, 「이무영과 친일문학」, 『청주문학』, 온누리출판사, 1996.

임기현, 「이무영의 친일소설과 일본어 사용 문제-『향가』를 중심으로」, 『비교문학』47, 한국비교문학학회, 2009, 239-267면.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정근식·최경희,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과제-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대동문화연구』74권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7-60면.

정실비, 「이광수 원작 「무명」의 번역을 통해서 본 번역자로서의 김사량」, 『한국근대문학연구』30, 한국근대문학학회, 2014, 191-227면.

조남철, 「일제하 한국 농민문학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조진기, 「이무영의 『향가』 연구」, 『배달말』44, 배달말학회, 2009, 73-102면.

<Abstract>

A study on the censorship and revision of
Lee Moo-young's novel “The Hyangga”

Kim, Young-a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vision and censorship of Lee Moo-young's novel “The Hyangga”.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pro-Japanese novel aspects and criticism of revision. To compensate for this, I wanted to present a discussion on the power of censorship involved in the revi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heck in what direction the writer's self-censorship worked right after liberation. Lee Moo-young's move can be summarized as erasing traces of pro-Japanese, criticism of pro-Japanese group liquidation, and active acceptance of right-wing ideology. In the end, the author carried out revision through self-censorship at the midpoint where pro-Japanese and anti-communism are linked. This revision changed the original story and theme drastically and shows us what Lee Moo-young's consciousness at the time. He chose to revise through self-censorship as a way to quickly see changes in the times and jump on them. Analysis of the orientation of revision soon provides clues to understand how censorship worked as a driver of revision. This is an act that symbolizes his jumping on the bandwagon without serious reflection on his pro-Japanese activities. Lee Moo-young promptly deleted and rewrote the controversial contents from the original, and this suggests that the author was aware of what the problem was with

this work. The contents that he modified or deleted are eventually deeply related to his perception of the times. By emphasiz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times, he trie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izing his pro-Japanese activities.

Key words: Lee Moo-young, "The Hyangga", peasant literature, revision, external censorship, self-censorship, pro-Japanese literature, anti-communism

투 고 일: 2021년 5월 23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